

죽도록 공부하고 심심하도록 기도하라!

신학의 길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것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열망과 서복후를 이끌어가면서 느꼈던 좌절이 새로운 영적 갈망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다.

1986년 겨울, 나는 합동신학원(이하 줄여서 합신)에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보았다. 면접시험 때 당시 시험관이었던 박형용 교수님이 "왜 의사가 신학을 공부하러 왔느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신학 공부를 안 하면 말씀대로 살기 어려우냐."고 되물으셨다.

물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위주(인체로 설명하면 근육에 해당)로 공부한 나로서는 신학적인 체계(뼈대에 해당)에 대한 영적 열망과 더불어 '학문의 왕'이라는 신학에 도전하고 싶은 지적 열망이 가득했다.

나는 결국 합신에 합격은 했으나 그 해 서울대병원 임상수련 때문에 실제 입학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다.

합신의 자량은 무엇보다도 소수정예주의를 원칙으로 한 경건의 능력과 아카데미한 분위기였다. 교수님들은 모두 경건의 능력과 인격,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분으로 학생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

당시 합신에는 성경 강해로 유명한 구약학 및 변증학의 박윤선 목사님, 영국 신사로 소문난 조직 신학의 신복운 교수님, 역시 구약학의 윤영탁 교수님, 역사 신학의 김명혁 교수님, 신약학의 박형용 교수님, 성경 신학의 김성수 교수님 등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학 전 성경 개요(원터 스쿨)를 담당했던 김영철 교수님과 설교학 및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했던 박영선 목사님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다.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매일 낮에 진행되는 채플이었는데 은혜로운 메시지, 힘찬 찬송, 열렬한 기도가 좋았고, 채플 입구에 써있는 '죽도록 공부하고 심심하도록 기도하자'라는 박 목사님의 글에 깊은 도전을 받았다.

의과대학 교수 시절, 서울의대에서 박사 논문 실험을 하며 춘천 한림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수원에 있는 합신까지 다니던 그 열정에 나는 지금도 스스로 놀랄 때가 많다.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마음, 그 과정에서 허락하신 잊지 못할 감동이 가슴을 메아리친다.

나는 모든 평신도가 신학자가 되어야 하고 신학의 삶(의식화되고 체계화된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신학의 핵심적 과정을 모든 평신도에게 개방하고 모든 목회자는 평신도를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자신의 전체를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성직자 층을 만들어내고 평신도를 격하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목사 귀족'이라는 말이 있다. 의식적으로 그럴 리야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일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직업 목회자보다 훨씬

많은 자비량 목회자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존 스토틀 목사가 에베소서 강해에서 천명하셨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론이 만인 사역자론으로 대체되기 전에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모든 평신도가 성도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직자로, 사역자로 제 역할을 감당할 때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권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주님의 뜻이면 밀어붙여라!

살롬 교회와 공동체 운동

합신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나에게 남은 가장 큰 발자취는 살롬 교회이다. '진리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깃발을 내걸고 당시 합신에 다니던 교교 1년 후배이자 CCC 동기인 이종석 전도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

그 당시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본질적 구별이 없는 성경적인 공동체 교회였다. 즉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100% 활용하는 만인 성직자요 만인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었다.

교회 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형제들에게 통보했다. 주님을 알고부터 아무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것이 나의 보편적 생활양식이었다. 그래서 형제들은 나를 돈키호테라고 했고 자신들을 산초로 자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7년 10월 18일 오전 11시에 수유리에 있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살롬교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초청장의 내용이었다.

막상 창립 예배 초청장은 보냈으나 두 번째 예배를 어디에서 드릴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해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다. 예배처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채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일을 시작할 때의 확신과 세밀한 부분에서의 확신이 일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당대했던 마음이 서서히 흔들렸다.

그런데 창립 예배를 드리기 사흘 전이었다. 한 자매를 만나기 위해 관악구청 앞에 있는 '라브리'라는 지하 커피숍에 들렀다. 크리스천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서 차를 가져다주신 주인아주머니에게 "이 찻집은 주일에도 문을 엽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살롬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주일에 이 찻집을 저희가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한참 후 남편과 의논한 끝에 "가능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Praise the Lord'였다. 주인과 대화를 시작한 지 십분 만에 살롬 교회의 예배당이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창립 예배 시에 "다음 주부터는 관악구청 앞에 있는 '라브리'라는 지하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이종석 전도사와 나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주로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냈다. 예배가 있기 하루 전 날 새벽에 깨어보니 비가 오고 있었다. 호세아서 6장 1~3절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치유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강한 조명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십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여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꿈에 그리던 교회, 살롬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종석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아직 사임을 못한 상태라 설교 봉사는 주로 내가 했고 심방 및 교육은 이종석 전도사가 담당했다. 찬양과 교제 후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후 같이 사랑이 가득 담긴 식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전원 제자 훈련을 하는 등 초대 교회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

전 성도가 함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회의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마친 후 가까운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전 가족 야외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첫 여름 수련회는 동해안 명주에 있는 산촌 마을의 한 농가를 빌려 전 성도가 말씀과 은혜와 휴식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아름다운 동해안과 소금강, 그리고 진부령의 알프스 리조트를 다니며 성도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 당시 나를 사로잡은 것은 살롬 교회였고 우리는 교회라는 명칭보다는 공동체라는 명칭을 좋아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도시 공동체 교회의 효시로서 독특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도들은 점점 늘어났으나 장소가 좁아 계속 지하 커피숍에 머물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예배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으나 돈도 없었을 뿐 아니라 마음에 드는 곳도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와 함께 방배동 지하철 역 부근의 부동산 중개소에 잠깐 들렀는데 그 중개인이 교회로 적합한 곳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같이 가본 곳이 방배동 주택가 2층에 있는 기존 교회가 있던 자리였다.

그곳은 3층 건물에 2층 40평으로 모든 여건이 우리의 형편과 딱 들어맞았다. 넓은 홀에 부엌도 있고 방도 있어 내부 구조도 좋았고 교통도 편리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교회가 이단이었다는 것이 꺼림직했지만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교회 형편상 전세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두 번째 방문 시에 주님 주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한 달 내에 치뤄야 하는 잔금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형제자매들에게 후원 요청 편지를 보냈다.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만의 열망이었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는 무모한 일로 보였던 것 같다. 십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만한 돈을 모으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성도가 서울대 CCC 후배들로 이루어진 데다 세상의 초년병으로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내가 살던 20평짜리 춘천 주공 아파트를 매매하여 비교적 거액의 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더욱 급박해진 마음에 토요일밤 모든 성도들에게 감람산 기도원으로 모이라고 연락을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것은 한마음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였다. 차마 용기가 없었거나 사탄의 방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혼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었다. 결국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든 비용이 해결되었다.

기적은 자기 부정과 십자가였다. 그것은 뼈를 깎는 헌신으로 이루어졌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내부 헌금과 외부의 도움이 있었다. 나는 그 이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던지는 결단을 했다. 그리고 나서 받는 은혜는 너무도 놀랍고 풍성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모서리에 서 있다'고 표현한다. 깎아내린 듯한 절벽 위에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 나는 이 모서리 앞에 직면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물론 그때에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일의 성패 여부보다는 주님의 뜻인지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성불성을 묻지 말고 순불순을 물어라. 능불능을 묻지 말고 신불신을 물어라'라는 말이 있다.

주님의 뜻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밀어붙이면 된다. 물론 그 확신이 주관적인 착각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빌립보서 3장 15~16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생은 어차피 탐험이고 우리의 생은 나그네 길이다. 탐험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나그네 길에 소유가 있을 수 없다. 물론 100% 주님의 뜻을 확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나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면 하등에 문제가 될 수 없다. 자녀가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하는 부모는 없다.

살롬 교회가 자리를 잡고 1년 만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 라브리에서 쉐퍼 박사의 사위이자 라브리 총재를 역임했던 맥콜리 박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형제자매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1년 만에 성도는 50명에 이르렀고 교회는 체계를 잡아갔다. 나는 의대 교수와 설교 봉사의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즐거운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살롬 교회를 섬기는 동안 받았던 은혜는 무엇보다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살롬 교회의 성도 중에 최고의 은혜는 평신도 설교자인 내가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시간을 극대화시켜 활용하라!

군대 생활의 비전 키우기

입영 생활의 추억

너무도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던 살롬 교회를 잠시 떠나야 할 일이 생겼다. 그것은 그동안 연기해 온 군 입대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지 1년 만에, 의대 교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나는 군의관 사상 가장 많은 나이로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1989년 1월 대구에 있는 군의학교에 입영을 했는데 한림대 1회 졸업생 몇 명도 같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같은 내무반에 배치되었다. 교수와 학생이 같이 입대하여 한 내무반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입영 이틀째 되는 날, 머리를 뺨뺨 깎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그때 자아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완전한 무소유로 정신적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감했다. 의학 박사요 전문의요 의대 교수에서, 이제부터는 하나의 훈련생으로, 인격이 아닌 번호로 취급되는 상황의 급반전이였다.

그때 나는 20년 무기수 신영복 씨(현 성공회 신학대 교수)의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이태 씨의 빨치산 체험기 <남부군>이라는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 모든 상황이 어찌 그리 딱 들어맞는지 감탄을 거듭하면서 독서삼매경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반입이 금지된 성경책을 숨겨두고 틈틈이 읽었다.

한번은 훈련생 한 명이 나에게 은밀하게 다가와 자기는 장로의 아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며 나에게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칭찬하였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와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일주일 동안의 신검이 끝난 후 우리는 영천에 있는 국군 3사관학교 군의 제 19기 과정으로 8주의 지옥 훈련에 들어갔다. 영천벌에 자리잡은 충성대. 김진영 장군이 3사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 세계 최강의 군의관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100Km 행군, 일주일 유격 훈련 등이 추가되어 우리로서는 참으로 힘겨운 일정들이 계속되었다.

나이 어린 구대장들(현역 중위)에게 반말을 들어가면서 내무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교육 담당으로 지휘 내무반실에 소속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첫 2주 동안 모든 개인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숨 막힐 듯 힘들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는 말씀이 실감나는 시간들이었다.

정규 식사 외에 군것질을 할 수 없었던 우리는 졸업식 때문에 하루 외박을 다녀온 훈련생이 사온 순대에 감격하기도 했다. 또 그가 가져온 한 개의 초콜릿을 서로 먹기 위해 싸움이 붙었는데 정말 가관이였다. 의사에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들어온 사람들이 초콜릿 하나에 그토록 치사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다. 그렇게 형제처럼 지내던 내무반원들이 먹을 것이 생기자 서로 '내가 먹어야겠다'는 동물적 본능을 내보인 것이다.

저녁 점검 때의 일이다. 구대장이 들어와 잠시 훈시를 하는 가운데 요와 담요를 개는 요령에 대해 설명하며 '가끔 훈련생 중에 요와 담요를 고무줄로 연결해서 몸만 쏙 빠져나오는 편법을 쓰는 일이 있다'며 내 담요를 들추는데 거기에 고무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구대장은 나에게 화를 버럭 냈다. "야, 이××야! 너 죽고 싶어!"

사실 군의관 입영 훈련 전에 우리끼리는 이미 선배들로부터 족보를 받는다. 그 족보에 적힌 것 중 하나가 아침 기상 때 늦지 않는 비결이었다. 그것은 요와 담요를 고무줄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기상나팔 후 5분 이내에 이불 개고 군화 신고 옷 입고 연병장으로 집합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요령을 배워 시행 중이었는데 그만 내가 걸리고 만 것이다.

나보다 11살이나 어린 구대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어가며 수치감을 참는다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이 주신 인생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러면서 그 구대장과는 점점 친구가 되어갔고 대위로 임관한 뒤에 나를 축하해 주는 그의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다.

훈련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침 알통 구보였다. 한 겨울철 새벽녘,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 옷을 모두 벗고 구보를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사나이의 정열을 불태운다는 흥분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시작했다. 사실 군가를 부르면서 군화를 맞추어 구보하는 것이나 새벽을 가르는 함성과 맨손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즐거운 스트레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도 노병인 나에게는 체력에 한계가 있었다. 며칠 동안 알통 구보를 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열이 나며 시들시들하더니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의무실로 업혀갔고 급성 편도선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엿새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나서야 다시 내무반으로 귀대했다.

말이 입원이었지 그곳에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만으로 6 일을 버텨야 했고 대화할 상대도 없이 홀로 고독과 싸워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담요를 똑바로 개야 하고 회진을 도는 군의관과 주사를 놓는 간호 장교에게 '충성!' 하며 부동자세로 경례를 해야 했으니 정말 삭막한 치료 환경이었다.

초승달이었던가, 희미한 달빛 아래 아무렇게나 방아쇠를 당겼던 사격장에서의 야간 사격, 그나마 100km 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행군에서 소대장을 맡아 앞장서던 노병의 열정, 진흙밭 밟아서 온 몸을 적셔가며 했던 PT 체조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화산 유격장, 정상 정복 후 최고의 보람을 느꼈던 포복 훈련, 입교 3 주째 처음으로 드렸던 감격스러운 주일 예배, 5 주째 주일날 처음으로 면회가 허용되어 아내와 아이들, 교회 형제들의 방문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추억... .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훈련의 중요성과 훈련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절제, 질서, 정돈, 청결의 아름다움에 대해 눈 뜨게 되었고 대학 시절부터 꿈꾸어 오던 '선교 사관학교'에 대한 비전을 높고, 넓고, 깊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육군 대위 시절

드디어 그 해 4 월, 나는 3 사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2 주 동안의 군의학교 훈련까지 마친 뒤, 군번 600009 로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임관하게 되었다. Captain Hwang! 비록 군의관이긴 하나 대한의 아들로서 나는 대단한 긍지를 느꼈다. 임관식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를 보고 다들 참모총장이 아니냐고 농담을 했다.

임관을 하고 발령을 받은 곳은 원주에 있는 1 군 사령부였다. 일주일의 휴가를 마치고 1 군 사령부 인사처 의무과 예방의학 장교로 부임을 했다. 환자를 보는 군의관이 아니라 1 군 휘하의 3 개 군단, 7 개 사단의 의무 지도는 물론 야전 병원과 이동 외과 병원, 사단 의무대를 총괄하는 의무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계급은 비록 대위였으나 인사처 장교였고 보직은 중령 보직이었으므로 점검을 나가면 보통 대대장급들은 꿈쩍을 못했다.

그 일년 동안 발이 닳도록 전방 부대와 각 병원, 의무 부대의 위생 점검과 지도 방문으로 강원도 구석구석을 누볐다. 군의관으로서 나처럼 군에 대해 깊은 지식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경우도 드물었다. 그래서 심지어 을지훈련 때에는 아군 작전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당시 내가 모시고 있던 분들이 모두 다 최정상까지 승진한 것 또한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이진삼 대장은 육군 참모총장을 거쳐 장관까지 지냈고, 당시 참모장이었던 박세환 소장은 ROTC 1 기로 대장까지 진급하여 2 군 사령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인사처장이었던 이재관](#)

준장은 대장으로 진급하여 1 군 사령관까지 지냈다. 또한 당시 인사차장이었던 이남신 대령은 기무사령관과 참참의장까지 진급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령부의 파티는 주로 골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사회를 보던 한 장군은 '우리는 자랑스런 이진삼의 부하'라고 하며 환호성을 유도했다. 십여 명의 장군과 백여 명의 영관급 장교가 오직 이진삼 대장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일사불란함과 확고한 지휘 체계가 참으로 부러웠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오직 주님을 위해 일사불란한 순종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우리는 대장되신 주님을 모시되 세계 복음화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무런 행동 통일 없이 너무 지리멸렬한 오합지졸로 있지 않은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그 기간 동안 윗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대학 강의를 계속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원주에서 춘천까지의 길은 2 차선이고 구불구불하기는 하지만 주변 경치가 너무도 수려하여 오갈 때마다 드라이브의 진수를 맛 볼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운동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아침마다 모든 부대원이 도수 체조 및 구보를 했고 시간만 나면 테니스를 쳤으며 하루 한 번씩 의무적으로 목욕탕을 찾아 온냉 교대욕을 즐겼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건강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11 평짜리 20 년 된 군인 아파트에 살면서도 우리 가족들은 불평 한마디 안했다. 그것은 집에 오는 것 외에 별다른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 지향성이 될 수밖에 없던 내가 가족들과 깊은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로 한 방에서 모든 가족이 지냈기 때문에 접촉이 많았고 그래서 더욱 행복했다.

가족들은 접촉할수록 친해지기 마련이다. 방을 따로 따로 쓴다고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행복은 아파트 평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가 작을수록 행복할 수도 있음을 체험한 기간이었다.

원주는 방위 개념상 전방에 해당되고 군인으로서의 위수 지역이므로 부대와 주거지의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살롱 교회를 맡고 있는 당시로서는 주말마다 서울에 올 수밖에 없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무조건 서울로 왔다가 주일 설교 후 심방까지 하고 원주로 돌아가면 새벽 1 시가 되었다.

어느 겨울철, 서울에 왔다가 원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늦은 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면서 빙판길을 달렸다. 또렷한 정신으로도 빙판길 운전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데 가족들을 태우고 시속 100Km 로 달리면서 즐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하다.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을 슬하게 넘기며 목회의 열정에 불탔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다음 인사이동 때엔 안정된 목회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 발령이 나와 할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육군 본부가 대전 계룡대로 이전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 해 8 월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다. 부대에 출근하자마자 매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찬양과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거침없이 기도하라!

기도 응답의 연관성

"주님! 나를 청와대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그때 나의 막무가내의 기도 제목이었다. 나는 두 가지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했다. 하나는 영적 사역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애국적 측면에서 달란트에 관한 것이었다.

"살롬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서울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의대 교수와 예방의학자로서 군에 와보니 별로 효율적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와 국민 건강 문제 등이 산적한 이 때에 제가 가진 전공을 가장 잘 활용하여 조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고 정책 결정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청와대로 보내주십시오."

가끔 청와대에서 군이나 정부 기관에서 필요한 사람을 빼간다는 사례를 언뜻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청와대 척출 케이스로라도 서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3 달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발신은 '서울 지구병원'이었다. 처음 들어보는 병원이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그 병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전용 병원이라는 것이었다. 그 병원에 처음으로 예방의학과가 신설되는데 그 초대 과장으로 군에서 예방의학 전문의와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진 3 명이 추천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중 한 명으로 추천되었으니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나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 명과 대결했던 갈멜산의 기도 응답을 연상하게 되었다. 3 년 6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절박한 상태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더라는 성경 본문이 생각나면서 이 서류 봉투야말로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

청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밀도 끝도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까지 내가 존재도 알지 못했던 대통령 전용 병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서류 제출 6 개월 만에 나는 서울 지구병원 초대 예방의학 과장으로 부임하여 서울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임기를 마치고 후배 한 명이 내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끝으로 예방의학과는 폐지되고 그 자리는 없어지게 되었다. 나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없는 자리까지 만드시고 다시 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기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기도하라.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신다.

나중에 알고 나니 그 기도 응답은 나 혼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인사이드에는 또 다른 간절한 기도의 배경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서울 지구병원의 진료부장으로 있던 분이 뜨거운 크리스천으로 그 병원 내에 사병들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고 아침마다 진료부 내의 과장들과 경건의 모임(QT)을 갖기 시작했으며, 수요일 점심때는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직원과 보안사 핵심 요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 병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시점에서 그분이 다른 병원의 병원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영적 지도자가 후임으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네트워크에는 우연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사실상 서울 지구병원의 형제들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인사이드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세계 복음화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하는 광활한 시각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동시에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느냐 하는 '상승 작용'과 '연관성'의 관점에서도 파악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나는 주일날 살롱 공동체와 지구병원 교회에서 2 번씩 설교하는 보람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나태하기 쉬운 공직 생활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비장한 각오로 입영한지 1 년 4 개월 만에 신분은 군인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으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병원의 과장들은 복장도 평상복에 머리도 자유롭게 길렀기 때문에 민간인이나 진배없었고 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었기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택은 아파트로 성북동 꼭대기 외교관 촌에 위치해 있었는데 숲 속이었고 산과 약수터가 5 분 거리에 있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나는 세 아이들을 데리고 약수터에 올라가 생수를 마시고 그 길로 산에 올라 서울 성곽을 한바퀴 도는 산책 코스를 좋아했다. 맑은 공기, 맑은 물, 푸른 숲 속에 살도록 규정된 셈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집을 그곳 지명을 따서 '복악재'라 이름 지었다.

사실 건강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은 어떤 시스템 속에 살아가느냐와 깊은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이 건강을 좌우한다. 그런데 환경은 내가 좌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 놀랍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은 그 병원으로 인사이드가 확정될 때까지도 대기자가 많아 사택 입주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었다. 그러므로 자력으로 서울에 주택을 마련해야 되었으니 기쁨과 걱정이 반반으로 나뉘어 지는 묘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몰아붙인 것이 책을 저술하는 일이었다.

그 전부터 건강에 대한 대중서를 쓰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원고를 준비해 왔던 차에 첫 저서를 내는 일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건강 강의를 많이 했던 나로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고, 이것을 책으로 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내가 제시하는 건강론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면서 돈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체험에서 우러나온,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지혜였기에 강의할 때마다 청중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대형 서점의 건강 코너에 가면 수많은 건강 서적이 있으나 대부분이 비전공자에 의해서 쓰인 것이었다. 자연식이나 요가, 기공 등 대부분의 주제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체험을 일반화시킨 것이 많았다. 그래서 예방의학자로서의 사명감이 책을 쓰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막상 이 열정에 불을 붙인 것은 경제적인 동기였던 것이다.

체험적 건강론

소중한 경험을 활자화하라!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다. 그래서인지 노는 데 별로 소질이 없었다. 어린이들에게는 따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 열심히 뛰어 노는 것 자체가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잘 노는 아이들, 집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건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한 부모가 운동이나 등산을 좋아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고 활달할 수밖에 없다.

나의 운동 부족을 유발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대학 시절의 기숙사 생활이었다. 결혼할 때까지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9 년이었다. 학교에서 조금만 힘들면 기숙사에 와서 눕고 쉬는 습관이 생겼고 강의 시작 30 분전에만 기상하면 되기 때문에 게으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몸이 더 약해졌던 것 같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힘들게 다니는 것이 오히려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는 첩경이 될 수 있었다. 편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편리'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감추어진 불건강의 씨앗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도 나는 건강에 자신이 없었고 오후만 되면 맥을 못 췄다. 더욱이 예방의학 교수가 되어 건강에 대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건강은 그렇게 엉망이었으니... 그래서 나는 과학적인 건강 비결에 대한 개인적 적용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는 교수 연구실에 야전 침대를 갖다놓고 점심시간 이후에 잠깐 동안 낮잠을 자는 일이었다. 단 5 분도 좋고 10 분도 좋았다. 낮잠만 자고 나면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졌고 생동감 있는 오후 근무가 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반드시 낮잠을 잔다. 어떤 때에는 차에서 1~2 분만의 토막잠을 자도 피곤이 풀린다. 이러한 현상이 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지는 몰라도 나는 낮잠의 경이로운 피로 회복 능력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한다.

사실 미국의 브라운 의대 연구팀은 인간의 두뇌는 생리적으로 오후 1 시부터 5 시 사이에 낮잠을 요구한다는 발표를 해서 나의 건강 체험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준 적이 있다. 특히 업무상 잠이 부족한 직종이나 수면 부족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낮잠처럼 훌륭한 보약이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두 번째로 내가 시도한 방법은 목욕 건강법으로 온냉 교대법이다. 따뜻한 물과 찬물에 두서너 번 반복해서 몸을 담그면 왕성한 혈액순환과 더불어 놀라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아무리 심한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 업무에 찌들려 있어도 이 방법을 시도하고 나면 새 힘이 돌고 피로가 몰려간다.

나는 온냉 교대법을 3,000 원짜리 건강법이라고 부른다. 언제 어디서든 목욕탕만 찾으면 실천이 가능한 실용적인 건강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방법의 효과에 대해 한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다.

세 번째로 시도한 것은 운동인데 이는 상황에 따라 실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주로 즐기는 운동은 러닝머신, 헬스, 테니스, 수영인데 요즈음은 가끔 수영만 하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다. 운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운동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나는 상황에 맞게 물 흐르듯 운동 방법을 찾곤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기지개)으로 운동을 대신하기도 한다.

건강은 어떤 한 가지에 의존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의 건강 순례의 길은 실험적이고 포괄적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강을 위해 스스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투자한 만큼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야가 심신의 건강이다.

한번은 면역 요법 연구차 스위스에 갔다가 오스트리아를 잠깐 여행한 적이 있었다. 렌트한 자동차로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패른 파스'라는 고개를 통과할 무렵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2,000m 나 되는 그 고개를 젊은이들이 사이클로 넘는 모습이었는데 10 시간 이상 계속해서 그 경사도를 따라 올라가는 코스를 원기 왕성하게 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체력이 부러웠고 젊은 날 저 정도의 건강과 체력을 키워야 미래의 세계를 정복할 역량이 축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상념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다.

'남의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남의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한 정치인의 좌우명을 빌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몸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생활에서의 신앙 고백이자 건강의 청지기로서 마땅한 바라 하겠다.

나는 세계를 주도했던 여러 분야의 많은 지도자들이 막판에 건강 때문에 본인이 주도했던 위대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비극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도 건강은 필수적이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좁은 의미의 건강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건강' '이웃을 위한 건강'이라는 슬로건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체험적 건강론을 바탕으로 1 군 사령부 시절부터 쓰기 시작하여 복약재에서 완성한 책이 <아빠를 젊고 건강하게(도서출판 호도애)>이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조선일보, 한국일보, 스포츠 서울 등에 소개되었고 교보문고, 을지서적 등의 건강 서적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일보, 국민일보에서 고정 건강 칼럼을 써줄 수 있느냐는 의사 타진을 해왔으며 KBS-TV 에서는 저녁 시간에 <건강 365 일>이라는 프로를 개설하는데 1 년 동안 고정 출연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해 오기도 했다. 고위층의 반대로 TV 출연은 몇 차례로 끝나고 말았지만 국민일보에 1 년 3 개월 동안 <성서 건강학>을 연재하며 성경과 건강을 결부시키는, 스스로 생각해도 참신한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대학 교수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는 SBS-TV 에서 토요일 아침마다 <아빠를 젊고 건강하게>라는 프로가 신설되어 매주 건강 칼럼을 전하기도 했고 매일경제신문에는 <성공 비즈니스 건강학>이라는 칼럼을 1 년 동안 연재하는 특별한 경력을 갖기도 했다.

또한 각종 신문, 잡지와 사보에 건강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으며 기업, 사회 단체, 정부 단체와 교회에서 강연 및 세미나를 해달라는 감사 초청이 줄을 이었다. 어떤 주간에는 한 달에 15 회의 초청 강연 및 세미나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삶의 보람과 흥분과 부담을 동시에 가졌던 때였다.

그 이후로 91 년 <건강미인 만들기(호도애)>, 92 년 <성서 건강학(국민일보)>, 95 년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김영사)>, 96 년에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호도애)>과 <사랑의 치유 일지(국민일보)> 등을 출간하여 사색의 환희와 글 쓰는 즐거움이 책이라는 결실을 맺는 감격들을 맛보기도 했다.

나는 많은 분들께 책을 쓰라고 권면 한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글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님이 삶의 현장에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보석 같은 지혜와 진주 같은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한다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다. 우리는 반쪽 성경만을 알고 있다. 생활 속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펴낸 유대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원리를 제시한 책이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다 언급하지 않는다. 성경 진리의 제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경 진리의 적용은 사람의 일이다.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에 더욱더 이 사명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급변하는 세계와 사회 환경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축적된 지혜와 실천 원리들을 즉각적으로 개발해내야 한다.

그러므로 책을 쓰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이 소중한 경험을 활자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영적 자산을 땅에 묻어버림은 물론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고통을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대로 반복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한 권의 영향력 있는 책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글 하나 쓰는 것도 찢찢 매는데 어떻게 책을 쓸 수 있느냐고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은 분명 어려우나 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쉽다는 것이다. 우선 마음의 자세부터 달라진다.

사람은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면 신바람이 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다른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한다. 그 후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 어차피 100% 독창적인 글이나 책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쌓아올린 기초 위에 또 하나의 벽돌을 쌓는 기분으로 책을 쓰면 된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책을 쓰기가 어렵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반이다. 글이란 일단 쓰기 시작하면 아이디어가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떠오른다. 또한 자신 스스로가 성장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 전에 나의 역량이 자라고 나의 생각이 정리되고 체계화되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애매한 사실을 활자화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책을 통해 나의 인격과 사상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깊은 인격적 교제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나는 책을 선물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에게 이런 말을 외치고 싶다. "하나님과 이웃과 역사 앞에 생의 발자취를 남기라."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해 주라!

테니스 행복론

서울 지구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삼청공원 산책이나 악수터 나들이 등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한번은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러 성북동 꼭대기에 있는 테니스장에 갔었다. 지금은 고급 빌라가 들어서서 그때의 흔적이 없지만 당시는 숲 속에 둘러싸인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 병원은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병원 과장들과 여러 번 테니스장을 찾았지만 막상 아내와 테니스를 치는 일은 드문 일에 속했다. 문제는 테니스 실력이었다. 나도 비교적 초보 단계에

해당하지만 내 아내는 진짜 초보였다. 그래서 테니스를 즐기기보다는 공만 주우러 다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테니스를 끝내고 아내의 손을 잡고 오솔길을 내려오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 마음에 기쁨과 뿌듯함과 행복이 가득 차 오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하루 종일 아내의 공을 주우러 뛰어다녔던 내가 행복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의문이 저절로 풀렸다. 그리고 행복의 비밀을 깨달았다. 나는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다. 남자에게는 일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여자에게는 일의 과정이 중요한 법이다. 아내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테니스를 쳤다는 사실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아내의 행복을 바라보는 그 행복. 나는 그 감격을 잊지 못한다. 내가 만족할 때의 행복보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런 행복을 맛본 적이 있는가.

나는 사랑의 봉사단 단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런 행복을 역설한다. 행복의 비결은 '남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 행복을 한 번 맛본 사람은 최소한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하라!

풍요 시대의 전도 방법

한번은 막내인 의찬이의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적이 있었다. 다음은 그 당시 썼던 사랑의 기도 편지 내용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특성 중 하나는 핍박과 고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이미 국민소득 1 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고 고도성장의 특혜를 누리는 풍요 시대를 구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기도했는가.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부도나고, 이른바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고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기도였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재현해 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허망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만 신앙이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병들고 피곤하고 지친 것이 미덕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행복하고 건강해야만 전도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풍요 시대의 전도 방법은 크리스천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모두가 다 피곤하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동감이 넘치는가' 하고 그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나의 건강과 행복의 비결은 예수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내아들 의찬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건 3 박 4 일의 병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나는 터미널로 마중 나온 아내에게 그 사실을 들었다. 일부 직원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수련회를 인도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쉬쉬했던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발목뼈만 부러진 정도로 회복 가능한 부상이었다. ‘예쁜’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는 의찬이를 보는 순간 감회가 새로웠다.

의찬이는 5 년 전에도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의 사고는 참혹한 것이었다. 골목에서 차에 치여 쓰러진 의찬이를 안고 오신 장인어른께서 아이가 죽었다며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다.

얼른 청진을 해보니 미약하나마 숨이 붙어 있었다. 아이의 미간에는 뇌출혈의 모습이 역력했고, 부러진 팔로 인해 심하게 고통을 받는 듯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이어졌다. 소아 응급실로 옮겨 응급 처치에 들어갔으나 아이는 점점 창백해졌고 혈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슴 사진을 찍어보니 한쪽 폐가 피로 꽉 차 있다.

응급 수혈이 끝난 후 아이는 일시적인 안정 상태에 들어갔다. 뇌출혈은 그리 심하지 않아 자연 흡수가 가능했고 부러진 팔은 깁스로 해결했으나 문제는 폐출혈이었다. 폐에 고인 피를 빼내야 하는데 마취를 할 경우 호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마취 없이 굵은 바늘을 찔러야 했다.

세 사람의 흉부외과 과장이 동원된 엄청난 작업이었다. 서너 번의 시도 끝에 성공은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를 부르며 몸부림치는 아이를 붙잡고 나는 처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든지, 좋은 학교와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든지 하는 기도는 나오지 않았다. 오로지 '몸만 건강하게 해 주세요.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만이 뇌리에 맴돌 뿐이었다.

불완전한 인간의 아버가 이렇건만 하물며 완전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겠는가. 나라는 존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존재가 아닌가.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항상 피곤하고 비실비실하고 스트레스에 찌든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